

# Jaco Pastorius의 연주 분석

## - Jaco Pastorius<Jaco Pastorius>앨범 중 Portrait Of Tracy을 중심으로 -

신충근\*,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moses777@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 An analysis of Jaco Pastorius's performance

#### - <Jaco Pastorius>of Jaco pastorius Focused on the song of Portrait Of Tracy -

Choong-Keun Shin , Tae-Seon Cho\*  
Chungwoon Gradute School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재즈(Jazz)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시작 됐다. 1970년대 유럽에서 생겨난 록(Rock)음악과 재즈가 융합하면서 퓨전(Fusion)재즈가 생겼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베이스 연주자들은 드러머와 함께 백 그라운드 연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Portrait Of Tracy'는 일반적인 저음 위주의 연주 패턴이 아닌 하모닉스 주법을 사용하여 저음과 고음을 같이 사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시도를 하며 베이스 기타를 단순히 저음 위주의 악기가 아닌 하나의 솔로 악기로 바꾸어 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Jaco Pastorius의<Jaco Pastorius>앨범 중 'Portrait Of Tracy'를 통해 어떠한 주법으로 연주했는지 스케일과 리듬을 분석해보고 그 특징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서 론

1970년대 퓨전 재즈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베이스 연주자들은 드러머와 함께 백 그라운드 연주를 했다. 하지만 Jaco Pastorius는 1976년 자신의 이름을 본 딴 그의 데뷔 앨범인 'Jaco Pastorius'라는 앨범으로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함과 동시에 솔로 악기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이후 핑거핑크 주법과 하모닉스 주법과 같이 실험적인 연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베이스 기타의 연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보통 대중음악에서는 곡의 멜로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로 인해 베이스 기타는 대부분 안정적인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단순한 연주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그루브 있는

리듬을 연주하고 그것을 넘어 밴드를 리드하고 솔로잉을 하는 연주까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Portrait Of Tracy'라는 곡을 분석하고 밴드 음악에서의 베이스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 론

이 곡은 Jaco Pastorius의 첫 번째 아내인 Tracy Pastorius를 위해 작곡한 곡이다. 'Tracy의 초상화'라는 곡의 제목처럼 베이스 기타로 화려하지만 때로는 절제하는 듯 한 느낌을 잘 표현한 곡이다. 이 곡의 특징은 일반적인 베이스 연주법이 아닌 하모닉스 주법을 위주로 사용하였으며 베이스 기타 한 대로 멜

로디와 화음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편곡 하였다. 베이스 기타의 기본적인 부분을 넘어 Jaco Pastorius의 실험적이고 감각적인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는 연주곡이기도 하다. 그가 이 곡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다른 베이스 연주자들에게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연주법이었으며 그 이후 여러 베이스 연주자들이 하모닉스 주법을 사용하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

〈Portrait Of Tracy〉



[Fig 1] 1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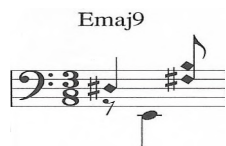


[Fig 2] 3 마디

[Fig 1]은 (G5 코드 - D5 코드 - A5 코드 - E 코드)가 진행되는데 A5 코드까지 각 코드마다 하모닉스 주법으로 (R 음 - 5도 - M7도 - 13도)로 연주된다.

[Fig 2]는 G/C 코드에서 3, 5도(B, D) - 9도(A) - R 음(G) 그리고 D/G 코드에서 3, 5도(F#, A) - 9도(E) - R 음(D)으로 진행되며 베이스 부분은 (C - G)로 진행이 된다.

4도 간격으로 하행하는 동형진행이며 특별한 멜로디를 연주한다기 보다 개방현들로 이루어진 하모닉스 연주를 위해 4도 하행하는 간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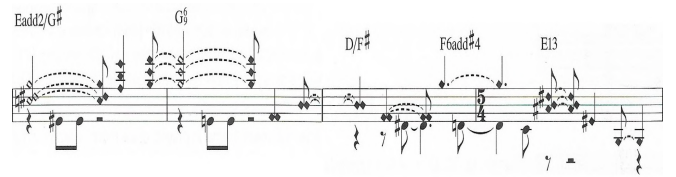
[Fig 3] 4 마디

[Fig 3]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EM9 코드의 1 번

째 음인 M7도(D#)음이다.

보통 베이스 기타에서 하모닉스를 연주하는 경우는 개방현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D#음은 개방현에서 찾을 수 없는 음이다. 또한 하모닉스 주법으로 많은 연습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베이스 기타의 3번줄의 2번 프렛을 누른 상태에서 6번 프렛을 하모닉스 주법으로 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Jaco가 하모닉스 주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연주하며 많은 연습과 연구를 거쳐 음을 찾아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Fig 4] 12-15 마디

[Fig 4]는 베이스음이 (G# - G - F# - F - E)로 하행 진행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반대로 하모닉스 주법으로 연주하는 화음들은 상행으로 진행되는 패턴이다.

12 마디의 3번째 박자와 4번째 박자에 나오는 두 코드들은 13 마디의 G6(9) 코드로 가기 위한 진행 코드로 봤으며 여기서 나오는 하모닉스 주법은 베이스 줄의 1번, 2번, 3번줄 2번 프렛과 3번프렛 사이의 부분을 튕김으로써 그 음을 찾아내어 연주했다.

그리고 이 곡 전체에서도 나오지만 12 마디 ~ 15 마디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모닉스 주법으로 연주한 멜로디, 화음과 베이스가 동시에 나오지 않고 하모닉스 주법이나 베이스가 서로 먼저 나오거나 나중에 나온다는 것이다.

보통 코드음을 표현 할 때 베이스와 보이싱이 동시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따로 움직이면서 마치 두 사람이 연주 한 것 같은 모습을 표현 했다.

[Fig 5] 18-36 마디

[Fig 5]의 11/8박자부터 시작하는 20 마디부터 4/4박자로 끝나기 전 마디인 35 마디의 연주는 전형적인 오스티나토(Ostinato) 형태의 연주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 마디-26 마디는 베이스가 (C - B - Bb - B - C - B - Bb) 로 움직이고 멜로디가 (D - A) 음을 반복적으로 연주하고 있다.

이 (D - A) 음이 20 마디 C6(9) 코드에서 9도(D) - 13도(A), 21 마디 Bm7 코드에서는 3도(D) - 7도(A), 22 마디 Bbm7 코드에서는 3도(D) - M7도(A) 로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D - A) 음이 악보에 표기하기로는 한 음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연주는 3 번 줄의 5번 프렛과 1 번 줄의 7 번 프렛을 같이 연주한 것이다.

많은 연습과 연주 테크닉이 필요한데 Jaco가 두 줄의 같은 음을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자칫 뚜렷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하모닉스 음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

27 마디는 베이스가 Eb(R음)이고 26 마디에서 이어져온 A음이 #11도, D음이 M7도로 연주하고 그 다음 A음과 G음(3도)을 화음 형태로 연주하며 EbM7#11 코드를 만들고 있다.

26 마디-27 마디에서 Bbm7(I) - EbM7#11(IV), 27 마디-28 마디에서 EbM7#11(I) - G#m13b5(IV) 형태로 28 마디부터 다른 형태의 오스티나토가 연주되

는데 이를 이어주는 코드를 연주했다.

28 마디 - 35 마디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G# - G 로 한마디씩 번갈아가며 움직이고 b5도(D), 7도(F#), 13도(E#)를 사용하며 또 다른 패턴의 오스티나토 형태를 연주하며 텐션 코드의 화려함을 표현했다.

### 3. 결론

이 곡은 하모닉스 음들이 많이 나오는 연주법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음정을 내기 어려운 연주법이다. 현의 길이를 등분하고 저음과 고음의 화음을 잘 배분해야 하는 곡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일정한 박자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타임으로 연주하며 변박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베이스 기타의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 실험적이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였다. 그 전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프렛리스 베이스의 연주, 그리고 하모닉스의 새로운 주법과 핑거핑크 스타일의 그루브한 연주 스타일, 또한 밴드를 리드하며 연주하고 솔로악기로써의 역할까지 영향을 끼쳤다. Jaco Pastorius가 사망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연주한 베이스 기타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많은 연주자들에게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가 작곡한 곡과 연주법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Jaco Pastorius의 특징적인 곡을 분석하고 연주법을 분석하며 연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Jaco Pastorius. Play like Jaco Pastorius. Hal Leonard. 2016.
- [2] Jaco Pastorius. Invitation. Warner Bros. Records. 1983.
- [3] Jaco Pastorius. Play 8 songs with tab and sound-alike audio. Hal Leonard. 2016.
- [4] 장응규. 재즈베이스 교본. 삼호뮤직. 2001.
- [5] 백병동. 화성학. 수문당. 1998.
- [6] <http://jacopastorius.com/life>